

제356회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(부록)
(임시회)

국 회 사 무 처

일 시 2018년2월23일(금)

장 소 제5회의장(220호)

【서면질의】

○박 정 위원 2

【답변서】

○기획재정부 4

* 서면질의서

박정우원

(총 1 면)

여름여 청년수당 (산자증기 9년회수속)
청년미래 특별위원회 밤정 의원

2018. 2. 23(금)

[질의_기재부 이주섭 과장]

- 기재부 이주섭 과장께 질의
- 서울시의 청년수당 실험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어제자 언론보도
 - * 서울시 청년수당 : 만 19~29세 청년 대상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, 구직여부 상관 無
 - 구직과 자립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 있었다는 평가, 또 누군가 챙겨주고 돌봐준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꼈다는 부분도 중요

[참고자료]

<동아일보, 2018.2.22., 청년수당, 구직만큼 인간관계에 많이 써...고립감 해소역할>

- 청년수당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신뢰 받고 있다는 느낌(대학원 진학)
- 금액 상관없이 심리적 안정감으로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어
- 청년수당 구직과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
 - * 주 사용처 : 수험서, 도서, 인터넷 강의, 면접필요 물품, 창업이나 창작을 위한 장비 구입 등
 - 돈 자체 보다 '돌봄' 을 원하고, '여유' 와 '시간' 선사
 - * 청년수당 받은 후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관계가 돈독해졌다는 내용 많아
 - 제공 서비스 중 유익 평가 항목, 구직정보제공, 마음탐구, 심리상담 등
 - * 일자리보다 누군가 챙겨주고 돌봐준다는 사실에 안정감
 - 정부 청년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, 지원금액과 대상 확대 예정
 - * 30만원에서 60만원, 3개월에서 6개월, 95,000명에서 213,000명 목표

- 청년수당 등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심리적 안정감, 고립감 해소 등의 역할 통해 사회 건전성에도 일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음
 - 다만 일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필요할 것임
 - 이주섭 과장님,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?

* 서면답변서

(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)

박정우온
질의에 대한 답변

박정 의원(더불어민주당)

(일자리경제과장 이주섭 044-215-8510)

청년수당 등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, 심리적 안정감, 고립감 해소 등을 통해 사회 건전성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. 다만, 일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.

-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 실업과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, 경기도 등 지자체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* 청년실업률(%) : ('15)9.2 ('16)9.8 ('17)9.9 / 체감실업률(%) : ('15)22.0 ('16)22.0 ('17)22.7

-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지원과 경제적 자립, 심리적 안정감 등 경제·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다만, 구직활동과의 연계성, 사용범위 등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이를 감안하여, 정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 활동지원금을 '19년부터 확대 지급키로 하였으며, 이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
* 졸업·증퇴 후 2년 이내 청년(단, 일정소득 이상 제외) 대상
< ('18년) 30만원, 3개월 → ('19년) 50만원, 6개월 >

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 활동 보고서를 확인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교육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구직활동 지원금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.